창조와 진화
– 누가, 언제, 어떻게?[1)]

1. 이 글은 손봉호 외, 『문서 선교사 웨슬리 웬트워스』(IVP, 2015)에 수록된 필자의 글 "과학과 종교 그리고 창조와 진화"의 일부를 재구성해 작성한 것이다.

그동안 창조-진화 논쟁을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창조냐? 진화냐?"라는 질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양자택일적인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이글의 제목이 "창조냐 진화냐"가 아닌 "창조와 진화"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필자는 '창조-진화 논쟁' 대신 '기원 논쟁'이라 부르기를 제안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조와 진화로 특정할 수 있는 두 입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진화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양자가 혼합된 중간적인 형태의 입장도 있다. 젊은지구창조론, 오랜지구창조론, 지적설계론, 유신론적진화론, 범신론적진화론, 무신론적진화론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둘째, 창조냐 진화냐 이 두 질문은 층위가 다르다.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이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답변이라면 어느 쪽이 옳은지 밝히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이라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적 접근 자체가 문제가 된다. 기원에 대한 질문은 다층적이다. 인간을 포함한 현재의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창조의 주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는 무신론과 기독교 유신론을 가르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시기와 과정에 대한 질문도 있다. 이는 주체에 관한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입장은 다른 차원의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의 주체

기원 문제에서 성경 특별히 창세기가 관심을 갖는 것은 창조의 주체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우주와 인간을 존재 하게 한 궁극의 원인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주와 인간을 초월한다. 창조의 주체는 창세기가 들려주는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을 넘어 창조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창세기에서 읽어내려 한다면 그 기록목적을 벗어나게 된다. 초월적 존재로서 창조주가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신의 창조행위는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로 기술될 수도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언어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탱하기도 한다. 하지만 창조주가 어떻게 우주와 관계를 맺고 이를 지탱하는지

박희주 현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호주 멜번대에서 과학사를 전공했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주된 관심이 있다. 미국 진화론 논쟁사에 대한 연구로 한국과학사학회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역서로는 『생명과 우주에 대한 과학과 종교논쟁, 최근 50년』,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 등이 있다.

창조주와 우주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는 초월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인간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연현상을 탐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창세기는 과학 텍스트가 아니다. 창조의 주체와 구원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증거가 아닌 믿음이다. 창조의 주체와 구원이라는 주제는 신앙의 영역에 속하며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

진화의 메커니즘

창조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물음이 창세기에 적절하지 않듯이 주체에 대한 물음은 진화론에 적절하지 않다. 진화를 가능하게 한 존재가 있는지 그 주체는 무엇인지 진화론에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답변이 돌아오겠는가? 진화의 주체는 생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이 답할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이 아니다.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진화의 메커니즘에 관한 탐구이다. 진화는 과정이며 메커니즘이지 주체가 아니다. 예컨대 하나의 종은 진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이지 '진화가' 생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진화론은 현재의 종 다양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이론이며 과학자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과학이론으로서 진화론은 다른 여느 과학이론과 마찬가지로 잠정적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과학의 역사는 과학이론의 변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이 시간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론의 디테일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중이다. 그래서 미래의 진화론이 현재의 큰 틀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가질 것이라 예측되며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2] 최근 진화론 연구자들은 시스템생물학, 후성유전학, 에보데보, 자기조직화이론 등을 바탕으로 1930년대의 진화종합설을 대체할 새로운 종합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이론적 잠정성은 물리학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묶는 양자중력이론은 지금도 완성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물리이론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형성과정 외에도 기원문제에서 과학이 큰 관심을 가진 영역이 있다. 현재의 우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현대의 우주론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과학적 근거를 지닌다. 오늘날 표준적인 답변은 우주가 대략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팽창중이라고 본다. 물론 이 답변도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잠정적이다. 우주의 나이에 대한 추정은 20세기를 거치며 계속 변해왔다. 빅뱅 모델 역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의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수치이며 모델일 따름이다.

2 과학이론은 특정 자연현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이다. 과학자는 현재의 이론이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보완하며 나아가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이것이 현대 과학 활동의 본질이다. 이런 면에서 만고불변의 소위 "과학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이론이 잠정적이라고 해서 과학이론의 가치가 부정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과학이론은 현 시점에서의 최선의 지식으로서 자연현상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하면 자연현상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름 아닌 기술이며 우리가 누리는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은 그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넘어 현 우주를 존재하게 한 궁극적 원인에 대한 질문을 과학에 던진다면 이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 현대과학은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 우주를 가능하게 한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과학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학이 아닌 종교적, 철학적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만일 어떤 이가 과학자로서 과학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논한다면 이는 범주착오가 될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가 과학의 이름으로 신의 부재를 주장한 『만들어진 신』이 대표적 경우다. 신의 존재를 개인적 신념으로 부정할 수는 있지만 신의 부재를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신의 존재여부는 과학의 탐구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3)]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원 문제를 '창조냐 진화냐' 라는 양자택일적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면 문제를 보는 시각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는 문자주의적 접근과 물질 만이 유일한 실재이며 과학만이 물리적 실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적 유물론이 여기에 더해지면 기독교와 과학은 걷잡을 수 없이 갈등의 관계로 치닫게 된다. 이는 본질의 왜곡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이다. 기독교가 반과학적일 필요는 없다. 과학도 반종교적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에 깃든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본질적인 것은 창조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구속주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우주 형성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며 이견을 관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사회에 보수와 진보에 걸쳐 다양한 색깔의 신앙이 공존하듯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기와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관용할 필요가 있다. 창조의 시기 문제를 두고 젊은지구창조론과 오랜지구창조론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서로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주체와 과정에 대한 질문을 혼동해 창조냐 진화냐 둘 중 하나를 강제하는 이분법적 프레임 역시 문제가 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창조의 주체에 대한 신앙고백'이지 '우주와 생명의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지식' 예컨대 진화론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다. 과학지식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구원의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제언은 기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논쟁에 더없이 적실하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3. 신의 부재는 과학의 결론이 아닌 유물론이 취하는 전제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 우주뿐이며 이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는데서 유물론은 출발한다. 신의 부재에서 출발한 유물론이 신의 부재로 귀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과학의 출발점은 관찰가능한 자연현상이다. 신은 관찰가능한 자연현상이 아니며 시작부터 과학의 탐구대상을 벗어난다. 도킨스가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신의 부재는 과학적 탐구의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유물론이 취한 전제일 따름이다.